

#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 성경의 포인트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되어야 구원이 지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가 되지 아니하니까 밀실에서 생활하게 해 놓고 거기에서 늘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다.”가 되면 나를 의식할 수가 없고, 세상이 생각이 내려야 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든지 눈을 감든지 늘 구세주만 생각이 나고 구세주만 보인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책 속에도 포인트의 말씀이 있듯이 성경의 포인트 말씀, 하나님의 포인트 말씀이 바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이는, 구속한 주님만 생각이 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의 포인트 말씀인 것입니다.

## 잡념이 곧 마귀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초초로 하나님만을 새기며 고도로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고로 잡념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영모님께서 마귀한테 완전히 씌운 사람을 바라보면 마귀한테 오염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초초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신한테 오염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고로 그대로 은혜받는 비결을 그 말씀 속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

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시간시간 바라 보고, 1초1초 늘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받는 비결이요, 생명과일을 먹는 비결이요, 영생을 얻는 비결인데, 이 엄청난 사실이 성경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

이긴자가 성경을 쓴 것이 아니고 실패자가 성경을 쓴고로 완성의 말씀이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절대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죄인이 쓴 말은 죄인의 생각을 그려 놓은 것이요, 죄인의 마음을 그대로 그려 놓은 책임고로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지만 온전한 은혜를 받은 자는 아닌고로 성경에 완성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잔불을 켜 방보다는 촛불을 켜 방이 더 밝고, 촛불을 켜 방보다는 전깃불을 켜 방이 더 밝고, 전깃불을 켜 방보다는 햇빛이 비치는 방이 더 밝은 것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햇빛과 같은 밝은 빛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고로 등잔불에서 잘 보이지 않던 조그만 것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 생각 하는 것이 죄요, 잘못 행동하는 것이 죄라고 알았는데 이제 밝은 빛이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죄가 바로 나라라는 주체의식이 라고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마귀의 영이요, 죄의 영이고로 마귀의 영이 주장하는 대로, 마귀의 영이 이끄는 대로 생각을 하면 피가 썩고 죽는다는 것은 지극히 과학적인 말씀이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피를 썩게 하는 것이 죄요, 나라



구세주 조희성님

주체의식이 마음을 움직이면 피가 썩는 것이요, 피가 썩으면 바로 생명이 썩는 것이요, 피가 썩는 것이 곧 죽는 것과 같은 것인고로 그것이 바로 죽을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라는 주체의식이 무슨 생각을 해도 죽을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오늘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불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마음이 곧 생명과일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마귀요, 죄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 속에도 있고, “나를

항상 버려라.” 하는 말 속에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 속에도 있고, “내 안에서 행치 말라.” 하는 말 속에도 있는고로 내가 행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만 안 쓰여 있지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 속에 하나님 안에서 행치 아니하고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라는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처럼 세밀하게 쪼개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자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나라라는 주체의식은 선악과이지만 양심은 하나님의 영이요, 영생의 영이요, 바로 생명과일인 것입니

다. 생명과일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인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영원무궁토록 산다는 것은 생명과일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생명과일이 뭔지, 선악과가 뭔지 또한 사람이 왜 죽는지, 죽는 원인을 밝혀서 말해주는 학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 자유율법은 바로 마귀를 죽이는 법

불경 팔만대장경에는 인과법칙론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차에 갈려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차에 갈려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금도 하자가 없

는 온전한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벌을 받고,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이 영생하는 비결, 죽지 않는 비결, 영원무궁토록 사는 하나님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대로 실천만 한다면 또한 자유율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죽이는 법이요, 마귀를 죽이는 법은 바로 내 생각을 없애버리는 법인고로 내 생각을 여지없이 초초로 지워버리는 생활이 바로 마귀를 죽이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 길을 못 간다면 구리구리 멧덩구리입니다.\*

1991년 12월 5일 말씀 중에서  
원현욱 기자 정리

## 인간의 조상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종교도 없었고, 학문도 없었고 이 사람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 종교냐 하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종교지, 죄인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고, 죽어서 천당 간다고 말하는 것은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죽는다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종교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영생의 신이 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이나 불경에 어떤 말씀이 쓰여 있느냐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는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을 분석해 본다면 전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조상은 하나님이지 인간의 조상은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이였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학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이였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학문도 아니요, 종교도 아닌 것입니다.\*

1991년 11월 6일 말씀 중에서

# 마음과 몸(영·육) 분리될 수 없는 하나(과학적 규명)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 피의 유전학적 내세관

### 1. 유령현상(幽靈現象)

옛날에는 밤중에 으스스한 산길을 가다가 혹은 외딴 곳에서 ‘도깨비불’을 보았다거나, ‘홍가에서 벌어진 기괴한 현상과 유령’을 본 적이 있다는 말들이 있었다. 심령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인간과 다른 사후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영국인 저자 로저 클라크(Roger Clarke)는 「유령의 자연사」를 통해서 유령의 존재를 인식하고, 유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내면 모습을 볼 수 있는 책을 냈다. 그 책에서는 유령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심령사진이 많지는 않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심령사진으로 알려진 ‘레이넘 홀의 브라운 레이디(The Brown Lady of Raynham Hall)’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작한 것으로 이미 판명된 가짜 심령사진들이 다 라고 했다. 흔히 유령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람을 놀라게 하는 불가사의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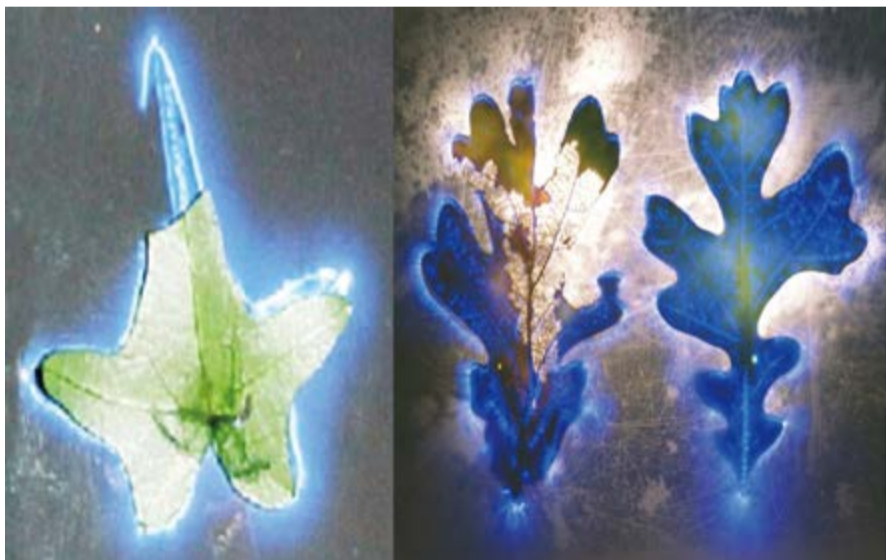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 통념을 반박한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유령은

‘감정의 영역’이라고 한다. 즉 유령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고 싶은 사람들의 환상과 열광이 만들어낸 그림자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유령 혹은 도깨비불 보는 경우는 현재의식이 약해지고(이때는 보통 육체가 경직됨), 사람 속에 깊숙이 잠자고 있는 ‘잠재의식’이 활동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는 점이다. 평상시 유령, 혹은 귀신, 초상현상에 관심과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러다 어떤 상황이 되면 그의 잠재의식이 활발히 작동하여 유령을 스스로가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것이다.

### 첫째, 놀라는 경우를 보자

사람이 으스스한 밤길을 갈 때는 우리의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진다. 이때 기혈(氣血)이 들떠 사람 몸이 몹시 자화(磁化)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도깨비와 비슷한 형상, 혹은 짐승 소리에 놀라면 자화된 피가 외부로 투사되어 마치 그것이 귀신이나 도깨비 형상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왜곡된 사념이 만든 환상(幻



키리리언 사진의 '유령 나뭇잎 효과'

像)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동묘지나 으스스한 곳에서 귀신을 만나거든 당황하지 말고 큰 소리로 “물러가라!”하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해서 쫓으라고 했다. 그 까닭은 현재의식이 두려움에 극도로 휩싸여서 약해져 있을 때, 자기 핏속의 잠재된 생각의 영에 감응되어 ‘귀신’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귀신이라는 ‘객체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주체

와 관련된 문제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밤에 도깨비불 보고 몹시 놀랐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어젯밤에 본 것이 썩은 빛자루나 흥두깨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귀신이나 도깨비를 보았다 하는 것은 사실 공포, 불안감 때문에 자기 마음이 경직되고 예민해진 데서 일어나는 ‘환각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 두 번째, 귀신을 보았다고 하는 경우

기도나 주문수도 혹은 명상을 행할 때이다. 이도 역시 현재의식이 잠들고 안정된 상태인데, 이때 잠재의식이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 상태는 마치 밤에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하게 핏속에 깊이 잠재해 있던 기억 등이 되살아난다. 우리가 평소엔 집착하고 있던 것이 꿈에 많이 나타나듯이 기도나 명상 때도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예수의 음성을 듣거나 예수의 환상을 많이 보고, 불교인들은 석가나 유명한 조사가 나타나고, 선도 수행자들에게는 신불(神佛)잡귀가 자주 나타나고, 부모와 처자, 친구가 나타나 수작을 걸어온다고 한다.

또 환각제를 복용할 경우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환각제를 복용하면 대개 육체가 경직되면서 잠재된 피가 흥분되게 된다. 그러면서 환시, 환청, 휘황한 환상을 경험하고 종종 무드의 심한 변화와 색채 환상을 일으켜 극도의 행복감과 흥분, 환희를 맛보기도 한다. 환각제는 무의식적으로 활동하는 내분비계·자율신경계를 흥분시켰기 때문에 이

러한 환상들을 경험하게 된다고도 한다.

심령과학자들이 유령의 존재를 강하게 주장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서는 ‘영사진(靈寫眞)’이라는 것이 있다. 영사진이란 인물이나 경치를 찍은 사진 속에 찍힌 사람과 함께 그 장소와 관계가 있거나 사진 속의 사람과 인연이 있는 죽은 사람의 모습이 함께 찍혀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앞 호에서 설명한 일종의 영사다. 영사가 나오는 것은 마음속에 강한 생각의 에너지가 방사함으로써 희망하는 인물, 경치, 글자 등을 사진에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영사진은 보통 사진 기술에 밝은 영능력자에 의하여 만들어진다고 한다. 촬영자 혹은 피촬영자에게서 강하게 투영된 사념파에 의한 것이다. 정말 유령이 사진에 찍힌다고 한다면 왜 보통 사람이 찍으면 그 유령이 찍혀 나오지 않겠는가? 우리는 저 유명한 키리리언 사진의 ‘유령 나뭇잎 효과’가 유령현상에 대한 오해를 이해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김주호 기자